

칼럼



최재영 <55기>
월간 정경뉴스 / 대표이사

탐욕은 파멸의 종착역 -

우리 속담에 ‘뱀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람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다. 프랑스 속담에도 ‘많지 않으면 충분하다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도 한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득한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본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을 파멸로 이끌게 된 것도 탐욕이다.

중세 가톨릭에서 말하는 ‘일곱 개의 대죄(大罪)’는 이러하다.

첫째 오만스러움, 둘째 과욕, 셋째 욕욕, 넷째 노여움, 다섯째 대식, 여섯째 시기, 일곱째 게이름과 허영이다. 그것은 석가가 말하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와 비슷하다.

그 첫째는 아침해가 밝았는데도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것, 둘째 남의 부인을 가까이 하는 것, 셋째 특하면 남과 다투는 것, 넷째 불필요한 일에 열중하는 것, 다섯째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여섯째 탐욕스러운 것이다.

이처럼 석가가 탐욕을 제일 마지막으로 꼽은 것은 그 만큼 덜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

이다. 그래서 석가는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누누이 탐욕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려 했다.

“부(富)를 차지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은 화약으로 불을 끄려는 것과 같다. 욕망의 절반을 채워지자마자 탐나는 것은 당장 두배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욕망에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리면서 석가가 강조한 것은知足(知足)의 지혜였다.

“꿀벌은 온갖 꽃으로부터 꿀을 빨아먹지만 꽃의 본래 색깔이며 향기는 조금도 해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많은 것을 탐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 적당히 만족할 줄 안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이다.

톨스토이 단편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달려간 거리만큼 땅을 모두 주겠다는 임금의 자비로운 영(命)이 나왔다. 한 사나이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가다 그만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죽을 힘을 다해 지팡이를 한치라도 더 앞으로 내뻗었다.

그리고 ‘지팡이 끝까지 내뻗었다’라고